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개강호 발간기사가 다양
공사관한 비판 요구

지난호 동대신문(제1179호)은 2학기 개강호이다. 그만큼 여...

동국관 지하 매점과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교내에 비흡연구역의 설치를 주장하는 바이다.

다. 금연구역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얼마전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머무르볼때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더이상 지나칠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패적인 학습환경과 학생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생각도 하여 교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여 일정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강의실에서만이라도 자제하고 또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어 궤양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계시판이나 ID:dgpress메일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금연구역 설치하자”
패적인 환경·비흡연자 고려

동국관 지하 매점과 지하에 위치한 강의실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

비흡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교내에 비흡연구역의 설치를 주장하는 바이다.

다. 금연구역의 필요성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얼마전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머무르볼때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더이상 지나칠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패적인 학습환경과 학생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생각도 하여 교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여 일정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강의실에서만이라도 자제하고 또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어 궤양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패적인 학습환경과 학생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생각도 하여 교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여 일정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식당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읽고
식대인상만이 아닌 합리적 운영 모색

지난호 동대신문(제1179호) ‘열린 글터’에 실린 ‘식당운영 합리화’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의 아쉬움을 털어놓고자 한다. 경영을 합리화 시킨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작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지 않고 합리화만 이름으로 영혼만 방랑에서부터 합리적운영의 방안을 찾는 것같이 답답함을 느낄 수 없다.

물론 식대인상에 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식당의 정형’보다 ‘관료의 정형’을 창출하고 있는 공관위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다량관 입구와 동국관 식당 입구에 걸려있는 시계가 거의 1년 6개월이 넘도록 시간이 맞기는 커녕, 날짜, 요일도 맞지 않는다. 직원들의 과대한 업무량 때문인가?

둘째, 지난 겨울방학 동국관 식당은 아예 폐쇄되었다. 식당경영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이유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생복지과에서 경영합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 때문에 동국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 각종연구

실에서 공부하던 학생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선배들이 다량관으로 올라가야하는 불편을 생각해 보았는가? 사실이 없다면 모를까, 왜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개강한 지금도 토요일에는 열지 않는가?

셋째, 다량관 식당의 문제(식사의 질)는 둘째치고 적어도 학부위에서 운영할때는 식단의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했고 오로지 식당의 사정에 의해서만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똑같은 메뉴로 점심, 저녁을 때워야 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공관위는 스스로 먼저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사고관과 자세로 새로운 운영형태를 창출해야 한다. 경영을 합리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합리적 운영을 옹호하고 지지하고는 둘째의 문제이다.

동/문/칼/럼
민족혼 집결시키는 가치관 정립

80년대 초기에 불란서 연수생활 시절이었다. 세계20여개국에서 산업계에 근무하는 회사의 중견간부, 경영간부 및 정부관료들을 대상으로 불란서 정부가 초청하여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불란서에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급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했던 정부차원의 조직적 관측활동이었다.



어느날 각자 자기나라를 잠시 소개할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다. 그는 ‘프레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코리아를 공부하였는데 고조선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발해, 고려, 조선 왕조를 이어오는 동안 이민족과 혼합되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여온 특별한 민족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서 코리아를 선전하며 칭찬해 주기에 나도 모르게 어깨 으쓱해지는 기분이었다.

그후 몇사람이서 저녁식사를 하며 토의한 일이 있는데 우리를 인솔했던 정부측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불란서가 가장 두려운 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웃하고 있는 게르만족과 아시아지역에서의 ‘프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소련(당시는 붕괴되지 않았음), 중국등 현재의 강국들은 힘에 의한 강제적인 강국으로 군림하지만 어느단체에 가면 힘으로 지배할수 없기 때문에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 게르만족, 코리아만큼은 힘으로 지배할수 없는 사상과 단일민족으로서의 파가 흐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깃발을 높이쳐들때 강대국을 형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말을 들은 후에 나의 마음은 한결 무거워졌다. 무엇이 짓누르는 것같은 압박감이 압축했다.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돌아켜보

면 압축한 사실 때문이었다. 조선조 말기시대의 당쟁, 일제의 강점, 동학의거, 선열들의 3·1운동, 국도의 분단, 6·25사변, 독재정부의 허구성, 5·16군사혁명 등등 혼란하기 이를데 없는 근세사를 살아온 선조들과 혼돈기에 태어나 성장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때 이방인이 보는 코리아, 코리아는 이렇게 아름다울수가 있는 것을 간파하고 살았다는데 대한 부끄러움과 ‘내가’ ‘우리세대’가 어떻게 해야할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용되고 이순만독재정부에 항의하여 경부대로 항하는 시위대중에 태극화 학생들보다 우리 동국의 선배님들은 앞장섰었다. 한·일회담추진에도 지나친 양보에 항의하는 데모에 적극가담하였다. 우리 동국대학의 선배님들은 여타대학에서 자기연신만을 노력하던 시절에 나라의 정래를 걱정하며 주어진 환경속에서 말은바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인가, 나라사랑은 무엇인가, 어디로 지향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반성하면서 우리의 민족혼을 집결시키는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우리 동국인 모두가 다같이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윤식
(제일엔터테인먼트(주)대표·식공66 총)

‘한달 생활비 6만3천원’
최소한 생활영위 위한 정책 요구

“실례합니다. 김○○씨 계세요?” “누군가?”, “예! 면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 계십니까?” “와, 찾았군요?” “할머니 생활보호대상자 이시죠, 다른게 아니라, 필요하신것이 없나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생보자들에게 대한 정보의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 정도와 효적등본상의 의무부양자들에 대한, 현 소재지 파악등 기본적인 질문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묻게 된다.

그러나 동흔현실이 그러하듯, 내가 실생활한 경우 서면일대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분명히 효적상에는 아들이 있지만, 대부분 부모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상황이며, 부모를 돌본다고 해도 자신들의 생활마저 빠듯한 도시 노동자들이어서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 고령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로 매달 지급되는 거액보호비 6만2천8백10원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게 되는 분들을 상상수에 이른다.

6만2천8백10원, 하루 약2천900원이라는 돈으로 연명해 가는 그분들의 가장 큰 소원은 다만 1만원이라도 정부지원이 늘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해방이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

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묵묵히 허리를 굽혀준 그분들의 소원이 하루 3백30원 정도의 구호비 추가인상이라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무너진 삼풍백화점의 손해액이 6천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돈이면 78만명의 생보자들이 일년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김영삼 정권이 ‘삶의 질을 높이자’고 외쳐대지만, 사회복지자를 공부하는 나로서는 아직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적인 면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젊은 우리들이 캠퍼스에서, 대학로에서 낭만을 즐기며, 계절을 노래하고 있을 때, 습기찬 방에 거동도 하지 못하며, 보건소에서 타운 약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고, 궁극에 가서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자립·평등·연대가 명실공히 이루어지는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김상준
(인문과학대 사회복지학과)

배낭여행 통해 얻은 교훈
호주인, 질서와 삶에 대한 의식 철저

지난 여름, 나는 배낭여행자로 호주에 다녀온 적이 있다. 붉은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광활한 대륙, 캥거루와 코알라의 나라 호주에 대한 내 느낌은 대충 이 정도였다.

미국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이기에 빠른 일정속에서 다녀야 했는데 처음으로 간 곳은 세계 3대미중의 하나로 꼽히는 시드니항으로, 항구와 함께 오페라하우스와 세계 7대문제로 긴 하버브리지까지 서로 어울어져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호주 원주민들의 생활양식과 1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예술작품을 모아 놓아 대영제국의 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어 거쳐간 곳은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에저즈록, 광활한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는 역시 세계최대해할 만큼 크기에 있어서 압도적이었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환경보다 내 자신에게 있어 크게 감명받은 것은 호주인들 생활 그 자체였다. 그들의 여유스러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와 삶에 대한 의식, 호주 사람들은 이 두가

지 만큼은 철저하였다. 한편으로 보면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그들로서 우리처럼 복잡하게 살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질서의식 아래에 깔려있는 양보라는 ‘과연 선진국답구나’하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와 대학, 취업, 결혼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구조와는 달리 그들의 생활법규는 이미 국제적이었다. 그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우리의 일반적 사회구조를 지향하지 않았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해 진정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접 자기개발에 몰두해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호주인들이었다. ‘삶의 관념, 이런면에서 우리 동국인들도 인생의 시야를 조금 넓게 잡아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김태우
(상경대 국제경제학과)

모니터 요원 공고

동대신문과 함께 학내어린이를 선도합니다. 정경윤(공보실 계장) 이수훈(생명자원학과 생명자원경제학과) 박상관(연구교류처 연구부계장) 김창민(공과대 기공과) 김정수(수범대 지교과) 김정현(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김일환(공과대 국문과) 김성원(불교문화대 불교학과) 유동선(경상대 정보관리학과) 윤영미(자연과학대 과교과)

모니터 요원은 이번주 수요일(9월 6일) 6시까지 신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동/악/광/장 온방골.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수만형! 스코시 오소이데모탄조비오메데 토고자이마스! - '95 상용. 정선이형의 첫번째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 아대무역95 학번 일동. 동업이의 복학을 환영하며 가을이 오기전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 영문 93 JS. 윤숙아! 생일 축하한다. 앞으로는 수업도 잘 들어오는 너가 되렴. - 윤리과 '94 DS. 사회학과 사·토·반에 예비역(?)병철이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사·토·반의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 시·토·반 한 member가. 유호스텔 회장인 연석이가. 9월 3일이면 태어난지 7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나마니 추키하고, 앞으로 많은 날 함께하자고 전해주세요. - 누구겠지 - 근현. D-U-B-S 3기 여러분이 9월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37기 여러분 첫방을 축하합니다. - D-U-B-S 리나 - 현. 축하합니다. 발매 진호·용욱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진심으로... - 현. 나싱, 효진누나, 동성

국회의원 수사에 나선 검찰

정치활동 위축 의도를 경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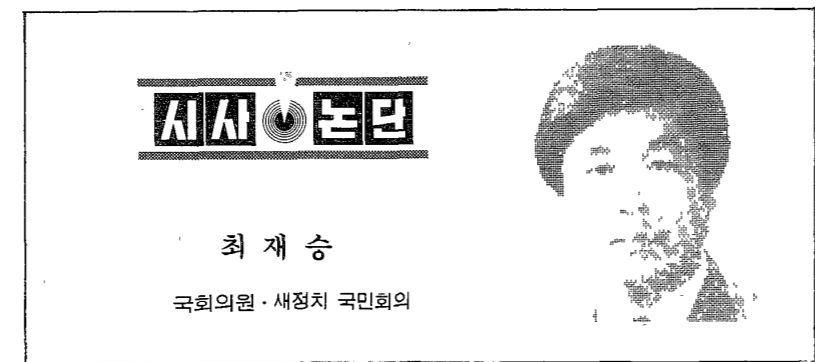
어느 사회이건 사회적으로 인정된 윤리 규범이 있다. 그 윤리 규범의 기준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이다. 법은 윤리 규범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법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함은 부말할 나위가 없다. 정의의 여신상이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 이후 지난 50여년간 우리에게도 법은 있었다. 그러나 그 법은 생법(生法)이 아닌, 사법(死法)이었다. 독재정권의 폭정에 의해 국민의 삶과 권리는 유린당 했으나, 법은 권력자의 노리개일 뿐,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살아 있는 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 보다는 주권이 가깝다"라는 한탄이 바로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던 헌법적 국민의 하소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비리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야당 인사들에 대한 편지법이시 수사를 통해 새로운 정당 출발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서 정국경색을 초래하여 일관한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의도가 표면화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최재승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의 행위가 오로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명정대함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를 끝이 끝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과거 우리 검찰의 모습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 현 집권여당을 포함한 과거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재현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근자에 목격된 검찰의 태도만 재기해도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명백해진다.

물론 새로운 선거질서가 필요하고, 정치한 정치질서를 구현한다는 명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즈음에 검찰의

입장과 태도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12·12와 5·17이라는 파렴치한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태로 하고 광주의 애국 양민을 그토록 처참하게 대량학살한 주동자들을 검찰은 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는가?

불기소 처분만이 35여년간 독재 정권의 폭압 아래서 민주화를 갈망하다 신음하며, 희생당하고 죽어간 애국열사와 광주의 넋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검찰은 자신의 결정을 역사 앞에 정당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윤만 전 재무장관, 이원호 전의원 등 군사정권시절부터 92년 대선때까지 친문학

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대졸국민선생을 쟁탈한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여 돌아왔는데 검찰은 수사의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다. 왜 일까?

지난 8월 초 '전직대통령 4천억 비자금' 수사 당시, '정치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공경하다고 믿기 때문인가.

최근 현직 총무처장관이 발원한 전직 대통령의 '4천억 원 가·차별 예금'도 '한 낮의 주정'이거나 유언비어였다는 수준에서 수사를 끝내 버린 것은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뜻이기 때문인가?

특정 야당에 촛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은 이번 검찰의 수사는 민심이반과 6·27 지방자치선거 참패에 따른 수세국면을 전환하고, 야당 활동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음해 공작 차원에서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젠가는 과거 독재정권과 현 정권에 관련된 검찰을 수 없이 많은 '해기파파리'가 국민 앞에 엄정하게 평가받기를 기대해 본다. 검찰에 의해서 말이다. 국민의 결에 선 공경하고 당당한 검찰의 모습이 21세기를 이끌어 갈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검찰의 자화상을 부디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사설

'5·18'해결, 현정권 최대과제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귀향을 앞둔 설레임속에서도 한편으로 명절을 맞는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우리에게 5·18항쟁의 역사적 해결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교 교수 60여명은 지난달 '5·18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의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권 행사를 촉구하는 결의는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단일결집 회로는 처음으로 '광주문제 해결과 김영삼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학생자들에 대한 화해행사를 거행, 투쟁결의를 다진바 있다. '투쟁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현정권에 반대함을 밝혔다.

4·19 이래 최대규모로 교수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했다. '5·18내란 주동자 및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이후 8월말까지 78개 대학 3천7백80명의 교수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현직교사들도 '5·18주동자 구속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교사선언'을 발표, "공소권 없음"결정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총련은 9월 하순경 특별법 제정촉구 동맹휴업을 펼칠 예정이며 본교도 과도의를 거쳐 동맹휴업을 결정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더 많은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5·18 진상규명'의지는 비단 '광주'라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전국민적 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참히 짓밟았던 학생자들에겐 쿠데타 용인의 면죄부는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5·18내란 주동자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피할수 없는 과제이다.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5·6공에 기반한 정권인물 스스로 인정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신망은 사라진 지 오래다.

5·18학살자 처벌에 대한 현정권의 태도는 해방직후 이승만정권을 연상케 한다. 8·15후 우리 민중은 일제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심판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 미제, 친일파와 손잡은 이승만의 방해책동은 현 정부와 흡사하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이 계속 지어나 특권을 유지하며 민족정기를 흐렸던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금번 전국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5·18관련자 기소처벌의 요구는 바로 현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임원을 각성해야한다. 결코 정파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는 안된다.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무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

진정 현정권이 문민정부라는 지칭을 내세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전후에 비로소 5월 광주정신은 계승되며, 이것은 민족정기와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로 현정권의 최대과제가 분명하다.

◇통합방송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상파 방송 체질개선·기존방송사 관료제 극복해야

자율성·독립성 보장 미흡 - 정부 영향력 여전히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은 향후 21세기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의 일관성유지, 방송통폐합등 방송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발전안이라는 점이 그 기본 골격이다.

선진 방송 5개년 계획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합방송법이 학계와 방송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을 뿐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후퇴를 줄것이라는 논란이 계속 야기되며 반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월14일 선진 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공공서비스라는 큰 틀 속에 공민영방송 공중체제를 설정한 후 단일 방송법 체제를 마련하고 통합방송위원회를 설치,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방송의 기본정책, 방송사 인허가권, 방송경영 감독과 방송

운영권선권, 프로그램 편성비율 광고 시간배정등의 업무를 계속 공보처에서 맡아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의도에 맞지 않게 진부하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게 됐다.

게다가 5공시절 방송 정책 구도인 방송 위원회와 심의 위원회 분리를 주장하는 공보처는 통합방송 위원회의 방송정책 강화를 배제시킨 채 자율성 심의권 강화만을 내세워 방송 위원회 위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편, 방송계에서는 방송 정책협의회의 총리실에 두는 방안에 대해 "방송영상정책기구 일원화와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통합방송법 시안과 함께 조성되는 방송발전기금(공적자금과 방송

사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방송 사업권료)또한 공보처 장관이 운영권을 맡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만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방송사업권료를 공익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방송사는 이중부담을 안게되어 반발을 살 전망이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 달 22일에 실시된 선진 방송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잘 나타났다. 공영방송 발전 연구위원회 위원장 류재천씨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장치 미흡하여 방송에 대한 정부의 기능 축소에 대한 제시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공청회에서 이광재(2천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위원은 "가장 중요한 지상파 방송의 체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기존 방송사



◇통합방송법은 자율성의권강화 이전에 통합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 관료제적 구조를 극복하고 프로그램 통제기능 강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용수(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기획위원장은 △MBC민영화 △교육방송의 KBS통합 △케이블TV 망 사업과 시스템 운영사업의 경영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등의 정책이 추가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은 지난달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된 공청회에서의 의견수렴후 국무회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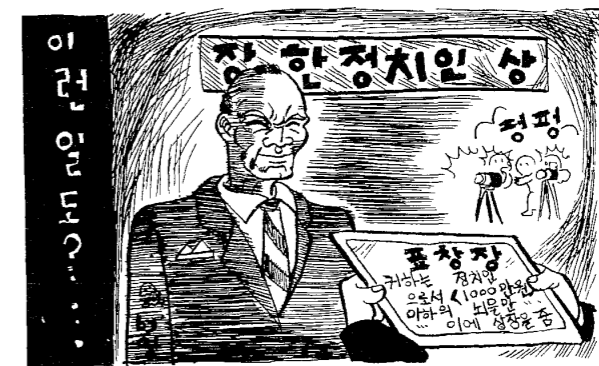
당장 협의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곧 시행 방송법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방송구조개편방향을 크게 바꿀 통합방송법이 21세기 선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위상을 강화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지난 시절 강압에 억눌린 방송계의 모습에서 진정 탈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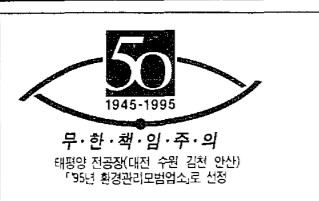
(송선영 기자)

중국반평

이영일



이런 인간... (송선영 기자)



내 안에 상드가 숨어 있다

우리나라엔 왜 여자 대통령이 없을까?
우리나라엔 왜 여성 지도자가 적을까?
21세기가 다가옵니다.
여학생 여러분의 숨은 뜻을 펼쳐주세요.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기업-태평양



조르주 상드 1804년~1876년

■컬취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을 뜻하는 프랑스어.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의 창조하는 말서가는 여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1회 컬취렛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95. 11. 20 ~ 11. 30
3. 응모주제:
 - 21세기와 한국여성
 - <특별한 소재의 제원은 없으며 미래 생활문화 개선 또는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포부 및 비전을 제시>
4. 응모방법:
 - 분 량: A4 용지 2매내외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권장)
 - 2장내외 논문내용 요약 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5.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95년11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용사신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6.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 3명 - 상패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 5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7. 입상자 발표: '95년 12월 23일 개별통지
8.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강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9. 기타사항:
 - 당사입사시 우대 (인원사원)
 - 졸업때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컬취렛 모임
 - 수상자 전원에게 24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출품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에 발표되지 않아야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강학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74-2288-9)



‘가독부(可毒夫)’의 분석—발해국 건립 고구려설 입증

가독부...존경하는, 큰 다스리는 자
부여어 ‘가’...왕·귀족 칭호와 일치

이글은 본교 사회과학을 졸업하고 북경 중앙민족대학 민족사연구소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김재선 동문이 발해의 민족 언어를 연구하던중 발해왕에 대한 칭호를 고증함으로써 발해가 고구려 민족의 후손이 건립한 국가임을 증명하는 글로 본사에 투고해 왔다.

발해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발해국의 민족문제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말갈설이다. 즉, 발해국을 건립한 민족과 발해국의 주체는 말갈인이라는 설이다. 둘째는 고구려설이다. 비록 이에 대한 발해국 관계자료를 적고 기재내용을 보완한 일치를 보이지 않으나, 현존하는 관계자료를 대하여 비교분석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정론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서 본인은 ‘가독부(可毒夫)’라는 한 말을 분석함으로써 발해국을 건립한 민족이 말갈인지 아니면 고구려 민족인지 규명하여 보겠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가독부’의 ‘가’는 ‘고아절(枯我切)’이고 음은 [kha], ‘독’은 ‘도독절(徒狄切)’이고 음은 [duok], ‘부’는 ‘보천절(蒲天切)’이고 음은 [piu]이다. (번역노절대)에 의하면 ‘가’는 ‘카’로 읽는데 중국어로는 ‘고’나 ‘대’의 뜻이 된다. 그리고 (삼국사기·계백구)주에 “왕봉구일운계백 한씨미녀영안장왕지야(王逢具一云伯備漢氏美女迎安藏王之也)”라 되어있다. 여기서 ‘왕봉’은 한자이며 ‘계백’은 속어가 되니 ‘왕’과 ‘개’는 뜻이 같고 오직 음이 다를 수 있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개’는 ‘고해절(古海切)’이고 음은 [kai]이며 우리음은 역시 ‘개’가 된다. 이 “개”음은 그 음의 상성을 빌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ka’음이 되며, ‘ka’음은 고구려에서 왕이나 귀족을 칭하는 명사이다. ‘ka’음은 역시 부여에서도 볼수가 있다. (후한서·우두전)에 의하면 부여는 여섯가지족으로 관을 이름하였는데 마가·우가·구가 등이 있고 그 음략은 제가에 주속된다. 여기에서 지적한 ‘가’는 분명히 고구려에서 왕이나 귀족을 칭하는 호칭에 부합한다. 이로써 발해국의 왕에 대한 칭호인 가독부의 ‘가’와 부여·고구려에서의 왕이나 귀족에 대한 칭호인 ‘가’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ka’음의 고유명사 표기는 ‘가’가 되며, 신라왕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써 ‘ka’음을 표기한다”)

‘가독부’의 ‘부’는 (철서언해)에 근거하면 ‘X’로 읽고 읽을 때 앞글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온다. 신라의 인명 중에 이사부·거절부가 있는데 (삼국사기)에 근거하면 이사부입은태종(曷斯夫一云 柁宗)이라 하며 (훈통자회)에는 ‘태’를 ‘it’으로 발음하니 ‘it’은 발음상 한자이고 ‘t’는 ‘언어학상’으로 종성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사’는 신라말이요 ‘태’는 한자의 뜻이 되니, ‘이사(it)’라는 신라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이사’의 종음을 빌린 것이며 발음상으로는 한자이며, ‘S’는 어언학상 중

성에 속하며 ‘i’음 아래에서 ‘i’음을 보조한다. 이로써 추측해 보면 ‘가독부’의 ‘독’은 역시 ‘t’에 속함을 알 수 있고 ‘ka’로 읽을 수 있으며, 조사 ‘부’는 ‘X’로 읽을 수 있다.

(신당서)나 (구오대사)의 기재와는 달리 (책부원구)에 따르면 ‘가독부’는 ‘가독대(可毒大)’로 되어있고 (오대회요)에는 ‘가독실(可毒失)’로 되어있다. 우리말 ‘커다’를 한역하면 ‘고(高)’나 ‘대(大)’가 되며, ‘커다’와 ‘가독’의 음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 가독부의 ‘대’는 ‘대인’의 뜻이고 우리말로는 ‘어른’으로 번역할 수 있고 판어 ‘대(da)’는 ‘수’의 뜻이다. 즉, ‘가독’은 음독이요 ‘대’는 훈독이다. 그러므로 ‘가독대’는 우리말로 ‘큰 어른’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 어른을 소급해 올라가면 왕이나 귀족의 뜻과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 ‘커다’는 역시 ‘대인’으로 번역되며 ‘어른’의 뜻이 된다. (한서·조선전)에 근거하면 “마한제서최대...기민토저, 각유장사, 대자명신지”라 한다. 이로써 ‘대자’는 한자이며 ‘신지’는 우리음이 되며, ‘대’는 ‘신’의 음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가독대’는 역시 ‘어르신’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 영도자나 장의 칭호가 된다. (대(da)의 판어뜻은 영수·우두머리이므로 가독대는 큰 우두머리의 뜻이 되기도 한다)

(오대회요)에 기재되어 있는 ‘가독실’에 대해서는, ‘가독’은 ‘어른’으로, ‘실’은 (설문해자)에 근거하면, ‘식시절(式視切)’이고 음은 [Gi]이니 ‘실’을 음독하여 ‘어르신’으로 읽을 수 있으며 한역하면 ‘대인’이다.

이상과 같이 발해국에서의 왕에 대한 칭호는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해사에 관한 가장 최초의 문헌은 (통전)이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한 문헌은 연대순서에 따르면 (구당서) (당회요) (오대회요) (책부원구) (신오대사) (신당서) 등이 있다. 그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당서)는 ‘가독부’라 하였고 (책부원구)는 ‘가독대’, (오대회요)는 ‘가독실’이라 하였다. (오대회요)에 기재된 ‘가독실’과 ‘실’과 (책부원구)에 기재된 ‘가독대’의 ‘대’는 모두 ‘어른’의 훈독으로 볼 수 있고 한역으로는 ‘대’가 된다. 또 ‘가독부’를 한역하면 ‘종(宗)’이며 ‘종’은 ‘고’의 뜻이 되니 이를 ‘대·실·부’는 모두 공통의 어원을 가지고 사적에 기재할 때 이를 고려하여 표기에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 ‘가독대’의 ‘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로 읽고 이는 ‘고’나 ‘대’의 뜻이며, (이·사)에 의하면 “강종이음, 행경이음, 이비독천하, 이만중지”라 되어있으니 ‘독’은 ‘치리(治理)’라 번역하고, ‘부’는 이 두로 ‘종’이고(‘부’로 읽을수도 있음), ‘중’ ‘존송’의 뜻이니 ‘가독부’는 ‘존경하는, 큰 다스리는 자’라 할 수 있다.

김재선 (북경중앙민족대학 민족사연구소·사 87졸)



◇지방 자치와 위기관리

무분별한 택지개발...재난 위험성 가중

지방정부, 조직개편·인력 전문성확보 급선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충주호 유람선화재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은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은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켜 국가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627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미래에 또 발생하지도 모를 각종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가 밀집되고 고도화되어 특히 도시 중심부에서 고도화, 고밀도화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해 취약한 실정이

다. 그리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위기관리 영역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 왜냐하면 지자체하에서는 실제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지방정부에게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가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는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의 완화(mitigation), 대비와 계획(preparedness),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는 재난발생 이전에 재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화와 대비전략을 세우는 사전대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응급대응과 복구과정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위기관리의 과정 중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한가지 예로 유사 이래 최대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의식부재가 주원인이 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이 사고는 행정관청의 형식적인 안전검사와 감독부실, 건설업체의 부실공사가 함께 만들어 낸 대표적인 재난 사례로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통합적인 지휘체계의 부재, 구조인력과 장비의 부족등 위기관리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큰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의 제정과 내부부에 재난관리본부의 설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압축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위기관리는 형식적으로는 민방

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과 관련된 주업무는 민방위국 민방위과 방재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화재가 동반된 실질적인 재난관리는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기타 재난은 개별법규에 의해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된다. 이와 같은 분산관리를 인력 문제점을 해소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현행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통합,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둘째로, 위기관리 인력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위기관리는 실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재난은 고도의 복잡성을 띠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난을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즉 위기관리자는 각종 재난의 유형에 따른 기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일반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위기관리자의 요건으로 G.B.Siegel은 재난에 관련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능력(abilities)을 들어 약자로 KSAs로 표하기도 한다.

셋째로, 구조조지와 장비의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 특히 재난발생시 각종 장비의 확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최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경험한 바와 같이 변경간과 선전등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구조장비조차 절대 부족하여 매스컴을 통해 시민들과 민간자원단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사례에서 수없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재정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조직개편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충분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는 반드시 예산편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방행정 현상에서 위기관리 재정은 예산배정상 기회비용적 측면이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계운영에서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지출항목이 우선순위에 경시되었듯이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에서도 재난예방에 대한 지출에는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재정이 인색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예산의 조정을 아울러 주민과의 합의에 재대비제와 같은 목적제와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

박동균

(사회과학대 신방과 조교)

동악로

기동들의 모임(?)

올 2학기 간부수련회는 “비변 일족속에 도원환한 2학기 사업을 위해 이자리에 모인 만큼 평가 받아 가고 동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는 때문 총학생회화합(경주캠)의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됐다.

지난 학기보다 작은 규모의 이번 수련회는 “간략히 백상제전, 2학기 학생회비 지분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획부, 총무부, 체육부를 주축으로 모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 여장을 풀고 간단한 담소와 즉구, 바닷가 산책등으로 시작하는 모습에서 막중한 학교기동들의 모임이 아닌 단순한 과-M-T로 느껴지는 것은 작은 규모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듯하다.

각 기구별 시간후, 새로 임명된 이항구(철학)학생회장과의 만남자리가 마련되었다. 신임회장은 “저는 학생들이 학교에 요구할것은 확실히 해야하지만 생산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인사말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예(?) 보지교수답게 학생들을 상당히 이해하려 할 것이다”라며 한 간부는 신임회장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학생회는 지난 등·부



말고는 뚜렷한 사업이 없는것 같다”라는 일반 학생들의 평가를 학생회비, 일단 의무적인 신임회장의 각오에 비해 학생회 화합이 너무 왜소해 보임은 왜 일런지... 조출한 자리후 총무부와 체육부의 2학기 사업논의가 진행되었다.

특별예산중증위약금에 대해 다시한번 고려해보자는 건의외에는 “서로가 단지 두돈으로 모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지 좀더 지분을 끌어안겠다는 기구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세심한 2학기 사업계획이 바탕이 된 효율적 지분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란 총무부장 회의의 본 목적을 나름대로 정리해볼 때, 방중 준비기간의 미흡이 아쉬운 순간이다.

“침묵하는 다수를 대리하는 학생회는 가라” 참여와 비판의 열린 광장에서 “침묵 시작”을 선포한다”는 총학생회의 출범기조는 어디로 갔나.

(신형섭 기자)

NEW KOLON 2000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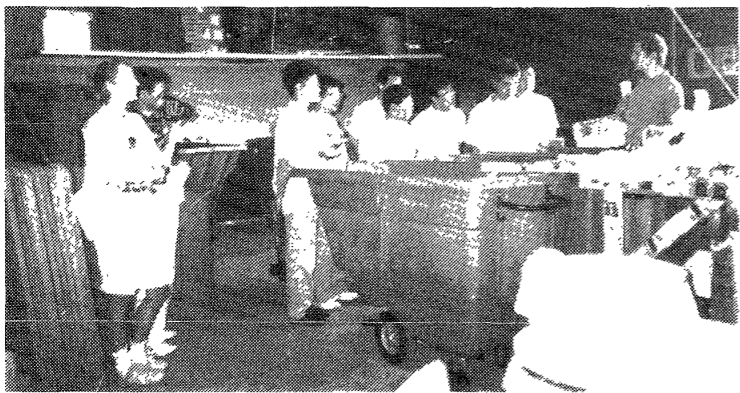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국의 가치를
드높이며 출범한 코오롱—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위치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보람의 일터—
코오롱

◇ 직원 해외 행정 연수 참가기

첨단시설·학생 위주 운영



◇ 직원 해외행정연수가 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자매교인 메인대에서 실시됐다.

지난 8월5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본 교자매대학인 미국 Maine대학에서 직원 해외 여행 및 행정연수가 실시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기연수인 이번 해외 연수는 행정업무와 관련해 여학연수 및 현장중점, 행정부서 방문·견학, 학교내 시설견학 등이 실시됐다.

총 10명의 행정직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교수, 도서관, 해외교류 등 각 분야별 연수성격을 들이본다.

학급시설(각 교실마다 OHP설치), 소규모 세미나실의 측면 White Board설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외국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 각종 전산시설 및 공과대학의 연구시설 및 운영방법, 경상대학의 전산시스템 수업시설, E-Mail의 다양한 운영, 수강신청의 다양한 방법, 학생의 편의를 위한 소책자, 각종 안내서준비등은 본교에서 상당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직원들의 친절함, 성실함, 학생의 공부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정신은 특히 배울만한 것이었다.

- 박동수(교무과)

최고책임자 밑에 부책임자와 3명의 과장, 1명의 전산담당사원이 있었으며, 직원 70여명과 근로장학생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도서관을 들어서면 첫인상이 최첨단화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첨단기자재가 구비되어서 백여대의 컴퓨터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요구에 맞게 설치되어 검색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서관 행정업무도 전산화되어서 자료의 구입에서 정리, 열람도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과의 차이는 일반열람실(독서실)이 전혀 없었으며 3층권을 전체가 서가와 열람책상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도서관 공간부족문제도 미국대학도서관처럼 이용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대학은 도서관 건물의 절반이 일반열람실(독서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윤주성(경주도서관 열람과)

연수기간중 메인주립대학교 우리대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눈여겨 살펴본 결과 첨단의 시설과 넓고

푸른 캠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시설과 인간중심의 운영이었다. 더 자세히 언급하면 학생위주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Bookstore에서는 일반서적, 교재, 한류, 문구류, 잡화, 일부식품까지도 판매장에서 취급하였으며 모두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산화처리로 당일의 매출액과 상품의 집계가 가능하였으며 신용카드의 사용도 가능 하였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교재값은 비싼편이라 교재 판매대에는 중고 교재를 신규교재와 같이 60-70%선에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 김계현(관재과)

학생 및 취업·부업업무에 있어서, 모든 학교의 행정 및 업무가 철저하게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취업업무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되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정보 중에 미국 전역의 주요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또한 많은 인원(학부생은 업무보조, 대학원생은 주요업무 및 상담)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형욱(학술교류부·전 취업과)

그들이 제시한 교과프로그램의 실패를 소개하면은 미국의 로도아일랜드대학의 공과대학이 독일의 한 대학에 인턴십과정을 개설하여 1년간 독일어와 독일공업계의 실패를 익히게 하는 경우와 일본의 한 자매대학이 3학년과정을 메인대학에 개설하여 영어와 약간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학생들의 국제 감각 및 언어구사력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인대학의 연수관계자들은 우리학교가 불교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고 동양의 전통을 대표하는 학교라는 것에 상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평화지향적이고 만물이 자비로운 불교정신을 우리가 품에 간직하고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으로 학생과교원을 통해 국제문화를 익히게 한다면 한국학생의 국제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명수(취업과·전 국제부)

이 글은 송석구 총장의 방중 해외자매대학 방문시 뉴욕주립대학의 박성배교수가 특별기고한 것으로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자의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 있다. (편집자)

박성배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1969년 1월 미국으로 건너온 이래 오늘 날까지 나는 단 한번도 미국에 영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아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무렵이었다. 이왕 온 미국인데 학생생활만 하다가 돌아간다는 것이 어쩐지 상심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지도 교수에게 내 포부를 이야기했다. "미국 대학에서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1977년 9월에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의 불교학 교수로 취임이 되었다. 처음에는 3년만 경험을 쌓은 다음 꼭 모교인 동국대학교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언급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직장생활이 의외로 쉽지 않았다. 외국사람으로서 미국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는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 '어렵다'는 것이 모호하게 사람을 끌었다. 어려울수록 더 도전해 보고 싶었다. 학생들과의 공부는 문제가 아니었다. 인종차별 같은 것도 참을 수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중앙학을 전공한다는 사람들의 엉뚱한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책만 보

방중 학내공사를 점검한다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 필요

방학을 보내고 2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가 학교로 돌아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후문 웅벽, 학생회관 옆 계단, 학림관 앞 인공폭포, 분수대 등 1학기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과 곳곳에 파헤쳐진 도로, 도서관·본관 청물 교체, 건물 도색등의 장면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학내 곳곳에서 여러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난 여름 방학때부터 시작된 조경공사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4백주의 식재와 후문 웅벽 미관공사, 학림관 앞 인공폭포, 체육관쪽 수목터널 조성, 만해광장 자연석 쌓기 등이 지난 8월달로 완료됐다.

시설보수 공사로선 백상의 집 내부 개수와 주변 포장공사가 지난 3월 끝났으며 진행중인 공사로선 △과학관, 학림관, 해학관 화장실 개수공사(9월20일까지) △체육관내부(사위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9월20일까지) △과학관 외부도색공사(9월7일까지) △금강관 개수공사(9월말까지) △LAN 관로공사(9월말까지) △본관 창물교체공사(9월10일까지) △교내 도시가스 배관공사(11월까지) 등이다.

이번 공사로 인해 캠퍼스는 공사 소음 등으로 강의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동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교내도로 곳곳이 파헤쳐져 극심한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관재과 이장진계장은 이번 공사에 대해 "방학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8월이후 비만은날이

특별기고

내가 미국에 남는 이유

‘한국학 운동’,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



고 지껄이는 소리는 항상 저렇게 엉뚱하기 마련인지 아니면 저렇게 왜야만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지만 일제시대에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에는 일본인 교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 역사나 한국문화를 강의했던 일본인 교수들이 한국을 그렇게 무시할수가 없었던단다. 한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한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한국문화가 과연 공부하면 할수록 경멸의 대상밖에 안되는 것이었는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학자가 그런 짓을 하더니, 불행한 일이다. 이

런 불행은 해방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어야 하는데 지금도 지구상의 여기 저기에서 여전히 일어난다. 이 일을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무슨 무엇을 가르치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평생토록 전공한 자기의 학문 분야를 무가치한 것처럼 경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뛰어 들지 않고 이런 잘못된 풍조를 바로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한국을 잔미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 한국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었다. 미국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 국적이나 인종, 종교, 문화, 정치적 이념 등의 차이를 넘어서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동지들이다. 이들과 손을 잡고 힘을 합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한국학 운동'이라 이름 붙였다. 내가 스토니부룩에서 동지들과 함께 이룬 '한국학 운동'을 시작한 지도 18년이 되어 간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뜻깊은말

‘너’의 자존심



황명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는 모르. 다만 약 50억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 50억 인구가 지금 이 지구위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저마다 각양각색이다. 참으로 화려한 일이다. 또한 그렇게 생긴새가 다르듯 그들의 성격도 다 다르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개성이라는 것이고, 그 개성이 있으므로 해서 세상은 살맛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실존주의가 흥미하던 1950년대, 한창 유행했던 말 가운데 '자존심'이란 말이 있었다. '자기에게 충실하라'는 실존적 의미부여에서 생긴말로 기억한다.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그 귀중한 존재를 더욱 빛내고 키우려 하는 곳에 '자존심'은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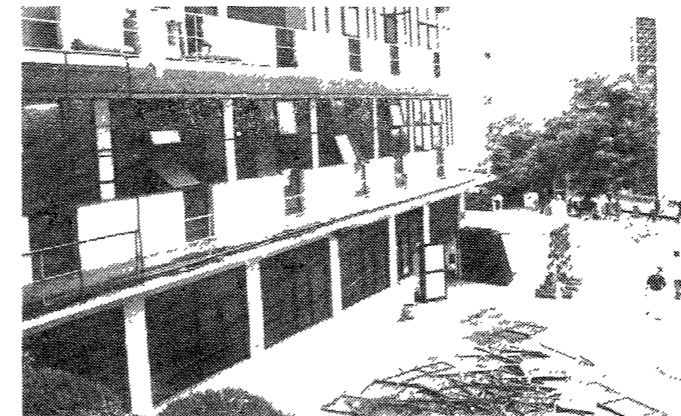
그런데 그 '자존심'은 대개 어떤 경우에 손상을 입는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바로 남과의 비교(比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비교에서 우위(優位)에 놓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절대적 존재로 남길 소망한다. 이것이 절대자존심이다. 이 절대적 존재를 소망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限), 이 세상에는 권위와 독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를 내면에는 누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면에는 버려야 한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법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자고 한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란 '나'와 '너'가 어우러져 '우리'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나'만 있고 '너'가 없거나 또는 '너'만 있고 '나'가 없는 사회란 얼마나 실망없는 세상인가. 우리는 지금 개인소득 일반불(佛)에 접근하고 있다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이 나라 소시민적 서민들의 가슴에 과연 그 말이 실감나게 와닿는 말일까. 아니다 물론 가진 자를 중심으로 치면 그것도 모자란다. 이럴때 우리는 '나'인 '너'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옳다고 생각한다.

문인협회 이사장

(곽주영 기자)



◇ 학내 외관공사뿐 아니라 강의실·도서관·도서관 기자재 확보도 시급하다.

6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소나기 등 비가 많이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며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밝힌다.

이번 공사에 대해 학생들은 조경공사로 인해 캠퍼스가 보기좋아졌으나 감각적인 공사에 만족하고 있다. 사범대 한 학생은 "인공폭포가 생겨 멋있긴 하나 예전의 룬비니동산이 없어져 서운하다"고 말하면서 캠퍼스 환경개선도 좋지만 학교당국이 강의환경개선에 소홀한 건 아니지 아쉬워한다.

본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본관 창물공사에 대해 "1958년 건물 신축이후 거의 5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그동안의 건물노후로 인한 근무 약조조건을 호소한다. 그러나 이번 공사들이 내년대학중

합평가를 대비해 성급하게 공사진행을 하는게 아닌지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로 이번공사에 대해 학교당국은 현실성을 보았을때 종합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시설보수'면이라고 자체판단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퍼스 공사는 도서관·본관 창물 보수공사 3억9천만원, 체육관 쪽 12억6천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왕하는거 사고없이 잘 하면 좋잖아요" "지금 급한건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보다 강의실·도서관 기자재 확보하는게 아닐까요?" 라는 말처럼 공사가 겉으로만 그치게 아니라 안으로 완성돼야 할 것이다.

Global Leaders of Tomorrow advertisement for Sunkyoung Group. Includes text about the 'Global Leaders of Tomorrow' competition, prizes, and contact information. Features a stylized figure logo and the slogan '모자를 벗자, 머리를 열자, 가슴을 열자, 미래를 열자!'.

달 하나 천 강에

구 총독부건물의 해체를 보며



구 조선 총독부의 철거가 해체되는 것을 보고 필자는 현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유고 내전의 현 당사자인 세르비아 사람들이 생각났다. 세르비아 사람들의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강렬한 증오감의 배경에는 역사상 한 때 오스만 터어키라고 하는 이슬람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쓰라린 기억이 있었다. 오스만 터어키의 지배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 더없이 분해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세르비아 사람들의 말과 풍습에는 예를 들면, 터어키풍으로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슬람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다. 이민족의 직접적인 지배는 사라졌으나 세르비아 사람들에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셈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끝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구조를 듣게 된다. 그리고 왜 그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좀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일제 36년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었고, 아직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만난 한 일본 사람으로부터 필자는 일제시대 36년간에 일본인이 한 일 중에서 그대도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 일제시대에서 저들이 한 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자부하고 있는 듯한 속셈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질문이어서 내심 불쾌했지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일제 36년은 완전한 부정의 대상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일제의 언어정책을 통한 지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 족쇄를 채워놓았기에 지금 우리는 그 족쇄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남아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시대의 일을 일본인들이 무슨 시해라고 배웠던 것처럼 거론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도 필자는 쓸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우리 주변에 일제의 잔재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데는 관련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사고도 가능하지만 인간은 대개 언어에 의지해오던 비로소 개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책'이라는 대상에 대한 사고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어로 짜여진 그물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프레드릭 제임슨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는 언어의 감옥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개념적인 사고를 할 때 아무렇게나 쉽게 사용하는 말들에는 일본인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조어(造語)가 많다. 눈에 보이는 일제의 잔재는 구 총독부 건물처럼 해체해 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의식하기가 힘들며, 또한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일제 말로 규제하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일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야 우리는 주변에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문화기층을 원근법(遠近法)적으로 파악하여 청산해야 할 대상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을 청산해야 할지 목표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합당한 방법의 모색과 그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제의 잔재 청산은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겉(功)과 같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제 36년이 마치 찰나(刹那)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질 때는 언제쯤일까.

이창중 인문과학대 일문과 교수

◇조정래 그리고 '아리랑'

“식민지시대, 민족 궁지 회복시켜준 저항과 투쟁과 승리의 역사다”



일제 식민지시대와 해방 이후의 현대사 전개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인식은 대체로 암울한 색채를 띠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채 노예의 생활을 강요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아직까지도 친일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올해 사회 각계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차례를 열렸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병준, 트리오, 장영주, 조수미 등 한국의 이름과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빛낸 이들이 오로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한데 모여 8월 15일의 밤을 천원하에 밝힌 음악회의 충격과 감동 못지않게 우리의 궁지를 회복시켜준 사건이 문학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1995년 7월 25일 마침내 완성을 보게 되었다 것이다.

김광옥에서 10년 8개월 만에 가출옥한 작가 조정래는 극도로 지쳐 보였다. 왜 안 그럴까. '태백산맥'의 대장정을 마치자마자 설 특종 없이 장기간의 고통속에 스스로를 유폐한 뒤 마 출옥한 그가 공포증에 걸린 채 출간하는 형세는 사나이의 얼굴을 알아본다면 그것처럼 아이러니할 일은 없으리라. 하지만 대답이 진행될수록 그의 작은 눈은 행렬하게 빛났고 음성 또한 카랑카랑 무거운 심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리랑' 완간의 의미를 묻는 필자에게 "식민지시대를 저항과 투쟁과 승리의 역사로 규정하여 우리 민족의 궁지와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잘라 말했다. 해방 후 우리 역사가 역곡과 파행으로 치닫해 온 까닭에 대한 조정래의 진단은 단호하고도 명쾌했다. 친일파의 잔조와 발호, 그들! 아직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역센 뿌리를 내린 채 부정과 불의의 온상 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참사와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조정래의 진단은 정곡을 찌른 것이며, 따라서 '아리랑'을 가리켜 "문학이 세운 반민특위"로 의미화한 작가의 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법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조정래의 모습은 마치 신들린 무당의 그것처럼 광기어지러져 피고 있었다. 민족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한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파렴치한에 대한 그의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중요야말로 '태백산맥'과 '아리랑'의 숨겨진 여정을 줄기차게 추동해 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정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친일모리배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대변자이자 사실(史實)에 정직하지 못한 일부 관료학자들을 대신한 참된 역사가가 부를 만하다.

'태백산맥'의 민족적 비극사에 대한 전사(前史)로서의 성격이 강한 '아리랑'은 원고지 2만여 종이를 분량의 대하소설이다. 역사소설가로서 항상 고통하는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역사(史實)와 소설(虛構)이라는 상호모순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절실 터이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실을 절충·변형시킬 것인가에 따라 작품의 성격과 지향점이 달라지리라 하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정래는 이런 난관을 등장인물의 철저한 허구화, 수식과 작가의 개입을 배제한 냉정하지만 객관적인 기술(記述)로 극복하여 소설적 진실성과 감동을 일구어낸다.

지구를 세바퀴 이상 돌면서 취재한 관련자료를 날조로 하고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전연적 사랑과 자긍심을 세울듯 한 '아리랑'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태백산맥'이 해방기 좌익세력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여 올바른 한국현대사

의 등배를 세운 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아리랑'은 거기에 혼과 기를 불어넣어 하나의 생명체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보아도 큰 잘못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조정래가 쓴 두 편의 대하소설은 기형(畸形)의 모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민족사의 시원을 제시한 우리 모두의 정신적 자산이며 자존의 보화(寶貨)인 것이다. 조정래는 식민지시대가 굴종과 패배의 역사라는 일반적 시각을 단정하지 거부한다. 실제로 '아리랑'의 전편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유명 무명인 한국인들이 허다하게 출몰하

고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담보하고 온몸으로 일제와 맞서 승리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는 일제가 얼마나 잔인하고도 악랄한 수단이로 한국인을 착취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유린했는가, 그리고 친일모리배는 어떻게 일제에 기생하여 처부하고 출세하였는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부한 표현대로 빈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기술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제침략사를 보다 상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역사서 이상의 정보와 가치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한다. "'아리랑'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것은 정직한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며 거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본다"고 단언하는 작가의 말에서 나는 약간의 과장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반전의 일제에 항거하는 유명 무명인 한국인들이 허다하게 출몰하

'촌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적 정의'라는 화두에 대한 오랜 세월의 참구 끝에 나온 결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조정래의 문학적 욕망의 향아리는 바닥이 뚫린 모양이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김광옥에서 가옥"한 그는 오랜만의 휴식을 즐길 틈도 없이 대담과 강연에 응하면서도 머릿 속에서는 '아리랑'과 '태백산맥' 이후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대한 구상을 이미 끝낸 듯하기 때문이다. '아리랑'을 쓰면서 "태백산맥"을 1센티미터라도 넘어서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의 오기에 대한 문학적 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쓰여질 작품이 형보다 못한 등성 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만 분명해 보인다. 굵직한 이틀 양 다른 외양이 그의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영우

(연극대 국문과 강사·문학평론가)

■히포크라테스와 허준■ 신경성질환

유전적 요인부터 환경까지 질환원인 다양 "적극적 자세로 원인제거 해야"

이광원 (외과대 신경정신과 교수)

사회가 점점 고도화, 기능화되어 갈수록, 인간은 그속에 예측되어 마치 하나의 큰 기계의 부품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한면으로는 더 복잡한 다양해 지는 것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다른면으로는 너무 획일화되어 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일어나서 쫓겨나서 차에 타고 한바탕 교통정전을 치르고 나면, 감옥같은 사무실에서 종일을 보내고 퇴근길은 아파트에 들어와서야 한숨을 돌린다.

주말이 되면 모두 기다린듯이 자연을 찾아 발출을 시도하지만 자 또한 복잡하고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청소년들이 남들과 뭔가 달라 보이려는 옷차림이나 행동도 이런 획일화를 따라하려는 몸부림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정신과 병원이란 하면 아직도 '미친사람이나 가는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남의 이목을 의심하거나, 막상 병원에 와서도 몇번이나 망설였다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신과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누구나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란 개념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정신과 의사로서 다소나마 위안을 삼기

도 한다. 정신과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하고도 많다. 크게 대별하면 정신병과 신경증(노이로제)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신병에는 '누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미행한다', '내 귀에 대고 얘기를 하고, 간섭을 한다' 등의 증상이 있는 정신병 열등과 기분이 같아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는 우울증과 그와 반대로 기분이 들떠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듯이 떠돌고 다니며 돈을 몰수하는 등의 증상을 가진 조울증, 그리고 흔히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하는 편집장애 등이 정신병 범주에 속하는 병들이다. 두번째로는 이보다 빈도가 훨씬 많아서 사람이 전 생애를 사는 동안 50% 정도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씩을 겪는다는 신경증의 범주에 속하는 병들은 다소 경한 우울증인 우울신경증을 비롯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마음이 불안정해 심하게 고통을 받는 불안장애와 흔히 '신경성두통', '신경성위염'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체화 장애, 이외에도 해리 장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로는 '고3병', '대4병' 등의 입시병과 적응장애, 인격장애, 약물남용, 알콜중독증, 성장애, 식사장애, 수면장애 등등 정신과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 장애들의 원인들도 다양해서 대인관계의 갈등, 극심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원인과 체질적, 유전적 원인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리는 뇌속의 생화학적 성분들의 과부족(過不足)에 따른 생생물학적인 원인 등 각 질병에 따라 다

양한 원인을 가지며, 또 이 원인에 따라 치료도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과를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개념은 어린시절의 환경이나 감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과의 대인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의 성장 발달 및 마음의 병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믿고 있다. 즉 환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도의 큰 마음의 상처나 보다 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을수록 충격이 커서 정신병 등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나게 된다면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그것이 현재의 자신의 생활이나 병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동국대학교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감사보고

제17기('94.3.1~'95.2.28)

본 감사인은 동국대학교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의 199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동국대학교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계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인은 다음 문단(1)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1) 본 감사인은 1995년 2월 28일 현재의 재고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재고자산에 관련된 회계기록의 특성때문에 기타의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동계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는 가지금금 135,000원, 단기대여금 5,000,000원,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 702,500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실, 폐기된 비품 36,138,490원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외상매출금 4,832,460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84,939,146원, 임대보증금 37,000,000원 및 퇴직급여충당금 41,778,4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당기부담분이 아닌 퇴직금 49,966,056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출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104,934,560원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각각 계상된 110,753,655원은 상계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을 경우보다 상기 재무제표상의 자산은 17,148,116원, 과대표시 부채는 78,778,400원이 과소표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금이 173,418,269원 과대표시, 당기순이익이 77,491,753원 과소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재고실사에 입회하였던 발전될 수도 있었던 수정사항의 영향과 위의 문단(2)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대표사원 공인회계사 이찬하

대차대조표

제17기: 1995년 2월 28일 현재 (단위: 원)

과목	대차대조표
자 산	
I. 유동자산 (168,924,651)	
(1) 당좌자산 (110,113,865)	
1. 현금과예금 102,094,015	
2. 외상매출금 8,019,850	
(2) 재고자산 (55,008,186)	
(3) 기타유동자산 (3,802,600)	
1. 단기대여금 -	
2. 가지금 3,802,600	
II. 무자산과 기타자산 (105,584,560)	
1. 전신전화가입권 656,000	
2. 출자금 104,934,560	
III. 고정자산 (62,007,854)	
(1) 유형고정자산 (62,007,854)	
1. 집기비품 146,947,000	
감가상각충당금 84,939,146	
자 산 총 계 336,517,065	
부 채	
I. 유동부채 (148,751,793)	
II. 고정부채 (84,778,400)	
1. 임대보증금 43,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41,778,400	
부채총계 233,530,193	
자 본	

I. 자본금 (85,291,120)	
1. 자본금 -	
II. 이익잉여금(결손금) (17,695,752)	
1. 당기순이익(손실) 17,695,752	
자 본 총 계 102,986,8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6,517,565	

손익계산서

제17기: 1994년 3월 1일부터 1995년 2월 28일까지 (단위: 원)

과목	대차대조표
I. 매출액 2,336,772,324	
II. 매출원가 1,550,840,448	
III. 매출총이익 785,931,876	
IV.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15,239,479	
1. 급료 460,820,608	
2. 상여금 106,859,632	
3. 퇴직금 -	
4. 비과세급여 3,750,000	
5. 잡금 80,516,700	
6. 복리후생비 23,939,095	
7. 수도광열비 634,400	
8. 수선비 5,299,180	
9. 차량유지비 2,462,910	
10. 보험료 1,616,310	
11. 세금과공과 12,708,107	
12. 지급수수료 1,300	
13. 통신비 2,640,980	

14. 도서인쇄비 1,408,899	
15. 여비교통비 267,900	
16. 교육훈련비 1,908,050	
17. 접대비 1,579,970	
18. 광고선전비 184,800	
19. 소모품비 28,300,445	
20. 전선문용역비 800,000	
21. 철회비 185,000	
22. 지급입차료 120,000	
23. 회의비 2,297,600	
24. 잡비 503,770	
25. 참가상각비 34,625,423	
26. 퇴직급여충당금 41,778,400	
전 입 액	
V. 영업손실 29,307,603	
VI. 영업외수익 187,617,131	
1. 수입이자 12,257,078	
2. 후원금 69,824,807	
3. 수입임대료 103,679,810	
4. 매입할인 1,114,218	
5. 잡이익 741,218	
VI. 영업외비용 140,613,776	
1. 공사비 4,401,600	
2. 지원금 134,840,516	
3. 행사비 655,500	
4. 직영사업비 349,600	
5. 잡손실 366,560	
VIII. 당기순이익(손실) 17,695,752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학복위 가을 어학특강 토익·영어회화등 7개강좌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오는 9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1시간씩 가을 어학특강을 실시한다.

각 강의별 강의실과 수강료,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강좌명	강의실	수강료	시간
TOEIC 특별반	G 207	9만원	07:30~08:50
System TOEIC Listening	G 208	2만원	17:00~18:00
아카데미 TOEFL	L 401	1만5천원	07:50~08:50
안팎사 TOEFL	L 301	2만원	07:50~08:50
고려원 VOCA	L 501	1만5천원	07:50~08:50
KLC 영어회화	G 209	10만원	17:00~18:00
ECC AFXN	G 207	미정	19:50~20:50

승진·재임용 교수 확정 67명대상 오늘자로 발령

95학년도 승진·재임용대상인 67명의 교수가 지난날 14일 법인이사회를 통과, 확정되어 9월1일자 발령됐다.

승진·재임용교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승진임용
 △조훈영(물리학) △최은만(컴퓨터공학) △이동욱(전기공학) △김성훈(교육학)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김영민(영문학) △이병철(경영학) △박영석(경영학) △이영재(정보관리학) △김주열(응용생물학) △이호용(기계공학) △유시규(수학교육) (이상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양영진(사회학) △배형(경제학) △한진수(회계학) △김영태(일문학) △조훈영(물리학) △이병철(경영학) △정용근(회계학) △이영재(정보관리학) △홍영식(컴퓨터공학) △최은만(컴퓨터공학) △백수현(전기공학) △이동욱(전기공학) △박선영(교육학) △김성훈(교육학) (서울컴퍼스 18명) △이수경(블로그아동학) △안재호(고미술사학) △한영환(생물학) △이대원(생물학) △이인자(화학) △김주환(전산통계학) △최준상(수학교육) △윤종훈(회계학) △주재훈(정보산업학) △정지전(한의학) △정찬(의학) △이경섭(의학) △남경수(의학) (경주컴퍼스 13명)

한편, 경주컴퍼스는 △이수경(본교 아동학) △안재호(고미술사학) △이대원(생물학) △김주환(전산통계학) △윤종훈(회계학) 교수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고창택(철학) △허만욱(미술학) △한영환(생물학) △이인자(화학) △최준상(수학교육) △우성기(법학) (이상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윤병식(불교학) △최효식(국사학) (이상 부교수에서 교수로)

공관위, 매장 새 업체 결정

컴퓨터 뉴텍 백상의집 코리아 케터링

지난 6월부터 미뤄져온 백상의 집 공사가 7월26일 이전 매장의 철수로 전면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새로운 임대업체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 6월29일 위탁급식전문업체인 코리아 케터링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원래 8월2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우천등으로 인하여 추후추진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컴퓨터매장 입찰건은 뉴텍 컴퓨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입찰 기준은 가격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했다.

이전의 현주컴퓨터보다 전반적인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조립품에서 완제품까지 전폭적 취급이 가능하며 현주컴퓨터의 부동도 판매하며

로 구입코자하는 가격에 맞추어 구매가 가능하다.

식대관련 설문조사 연기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학생식당의 식대와 질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모니터링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각 단과대별로 1명씩 선정된 모니터링원이 현재 5개 단과만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6개 단과는 아직 미정이다.

학복위는 오는 11월 있을 총운영위원회의에서 확인을 거쳐 모니터링이 확정되는대로 학생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학기 총학 진군식 내일 개최 학자투·재단혁신 제안 예정

'95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진군식이 내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팔정도 주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진군식은 총학생회 2학기의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여러사항이 기획되어 있다.

첫째 마당인 한가위 마당은 부호, 재기차기 등의 민속놀이와 송편빚기 등을 시작으로 길놀이, 고사, 개인·단위 소원지 태우기, 떡매치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실질적 진군식 자리인 본 마당은 동우회를 세웠던 선배들의정신을 계승 90년도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동국발전으로 재정립한다는 내용의 '아! 동국'집체극과 새벽바람 공연, 단위 공연, 박출 등의 문예 행사 그리고5·18관련 연설, 진군 선포문 낭독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학원자주회투쟁국장 최용배(국교4)군은 "이번 진군식은 당면과제인 5·18문제와 학원자주회투쟁 그리고 오는 10월에 있을 재단이사장선거와 맞물린 재단혁신등이 주요 내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진군식과 같은 집회가 아니라 열려있는 마당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중문과의 한 학생은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임시학생회실이나마 얻은 것이 기쁘긴 하지만 아직 임시로 마련된 학생회실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임방식의 의의를 시사했다.

야총 오늘 전학대회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는 오늘(4일)오후 1시 전제 학생대표자회의(이하전학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2학기 사업계획 △1학기 감사보고 △의결개진운동 등을 통한 야간강좌투쟁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5·18투쟁 등이다.

황인구(영문3)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은 "단순한 항의방향이 아니라 일본보수화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대변했던 상징성을 띠는 투쟁이었다"며 "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김정수군은 "대부분 분노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규탄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더불어 미온적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그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했던 학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6투쟁에서는 본교를 비롯한 서충원소속 학생 60여명이 참가 "일본군국주의반대"와 외라나베 광언을 규탄하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 건물내부 7명가량이

불타었다. 이날 경찰은 집회참가 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국역 지하철도를 세우고 차내에 최루탄을 터뜨리며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과잉폭력이 난무했다.

이날 집회에서 심한구타로 누굴이 부러지기도 했던 박우영(영문4)군은 "6.6투쟁은 가장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정당한 투쟁이다"고 말하며 경찰의 과잉폭력을 비난했다. 김용구군과 김정수군은 "광복50주년, 통일원년을 맞아 반외세 자주회투쟁에 우리 청년학생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김용구군은 "일본군국주의반대"와 외라나베 광언을 규탄하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 건물내부 7명가량이

불타었다. 이날 경찰은 집회참가 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국역 지하철도를 세우고 차내에 최루탄을 터뜨리며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과잉폭력이 난무했다.

이날 집회에서 심한구타로 누굴이 부러지기도 했던 박우영(영문4)군은 "6.6투쟁은 가장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정당한 투쟁이다"고 말하며 경찰의 과잉폭력을 비난했다. 김용구군과 김정수군은 "광복50주년, 통일원년을 맞아 반외세 자주회투쟁에 우리 청년학생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김용구군과 김정수군은 "광복50주년, 통일원년을 맞아 반외세 자주회투쟁에 우리 청년학생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김용수·김정수군 출소환영식 6·6 투쟁 연행 집유3년 선고

지난달 2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용수(사4)·김정수(지교4)군의 출소환영식이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와 사법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주최로 나향관에서 진행됐다.

지난6월 외라나베 일본 전의상의 광언을 규탄하는 일본대사관 향의 방문투쟁과정에서 연행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김용수(사4)군과 김정수(지교4)군은 지난 23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은 "화염병 투척시 건물내에 사람이 있었고 연행된 실정엔 위반이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 부합, 광언에 분노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용수(사4)·김정수(지교4)군의 출소환영식이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와 사법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주최로 나향관에서 진행됐다.

김용수(사4)·김정수(지교4)군의 출소환영식이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교4)와 사법대 학생회(회장=조현중·국교4)주최로 나향관에서 진행됐다.



◆차사이로 숲... 교내도로 곳곳이 가스배관 공사등으로 파헤쳐져 민해광장이 때이던 '자동차 물살'을 알고 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총무과는 오늘부터 차량통제를 하고 있다. (백도나 기자)

취업특강 13일 자료집 무료제공

취업과(과장=황우열)는 취업특강을 장재성(매일경제신문 취업뉴스센터국장)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오는 13일 오후2시 동국관(L301)에서 가질 예정이다.

9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이번 특강에서는 취업에 따른 준비요령과 삼성, 대우등 국내 대기업체의 변형된 채용정보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황우열 취업과 과장은 "특강 참석자에게 요약된 취업관련자료집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 본교 6일 중앙대와 첫게임

95전국추계대학 축구연맹전이 서울 종대문, 효창, 보조구장에서 오는 9월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다.

전주대, 중앙대, 관동대의 같이 2조에 속한 본교는 대회 첫날인 6일 중앙대와 보조운동장에서 첫 게임을 치른다.

범대 5일 정기총회 사업평가·회칙개정 안건

법과대(회장=나상원·법4)는 내일(5일)오후12시 동국관(L301)에서 학기사업 평가와 회칙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추석 귀향버스 추가접수 오늘 도서관 앞에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는 추석 귀향버스 접수를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끝냈다. 9월1일 현재 1천566명이 접수했으며 부산행이 1백60명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학복위는 미처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오늘(4일)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무진장 큰스님 법회 '오늘을 사는 지혜'주제로

'오늘을 사는 지혜'로 무진장 큰스님의 법회가 오는 12일 경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열린다.

경주정각원 범종각 기공식

경주정각원(원장=이행구·불교학)은 오는 12일 오복원 이사장, 승석구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기공식을 갖는다.

희전문대

매투기 때(?)

○...학림인의 대이동? 지난 31일 오후1시경 학림관 4층에서는 빈강의실을 찾아 대이동이 있었다는데,

5교시 수업을 위해 강의실을 찾은 학생들은 수강생수에 비해 너무 좁은 강의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번째 강의인데도 강의실이 한번 변경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와 맞지않는 터무니없는 강의실 배정에 더욱 격분! 자리가 없는 일부 학생들은 뒷문가에서 서성거리기도.

이날 자리없어 잠시 서있던 한 학우 왈 "과연 배움의 길이란..."

대결

○...U면되는 단무지. 보리수와 원홍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은 단무지를 먹을 때 우 조심스러워 진다는데,

먹을 양보다 많이 담아가서 남기는 학생들과 이렇게 남긴 단무지를 다시 씻어서 사용하는 아수머니들의 대결이 막하(下)막하(下)라.

이에 회전문대가 한마디 "단무지! 그대는 어느노? 이 부끄러운 대결을..."

이용률의 허와 실

○...요즈음 학우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유인즉 학생수에 비해 전 학기수가 부족한데다 본관 앞의 전학기는 모두 불통이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가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도서관안에서는 전학대의 긴 행렬로 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기진맥진시킬 정도인데,

이를 본 어느 학우 왈 "호출이 있어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무선전화기 아니면 통화하기 쉽지 않겠는걸"

이색농구

○...쓰레기통이 농구골대? 요사이 학생들사이에는 이색 농구가 한창이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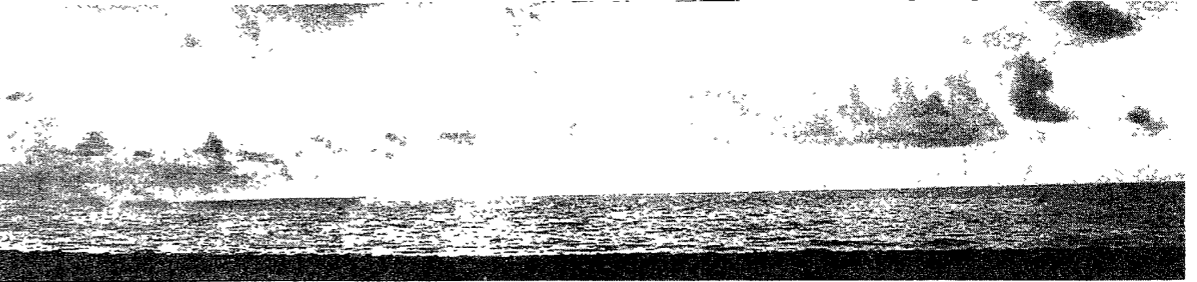
알아본즉, 쓰레기통을 버리고서 쓰레기통까지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담배꽂으며 음료수캔을 농구공삼아 너도나도 솜을 쏘아댄다고.

이에 한 학우 왈 "그럼, 골인된 공 리버온드는 누가?"

민족애국

자랑스러운 이름에 생명을 불어넣자!

9월5일 90년 역사에 새 장이 열립니다.



식전행사

한가위맛이 민속놀이가 동악교정 곳곳에서 10시부터 시작되며 송편빚기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시30분부터는 불상주변을 중심으로 길놀이 시작됩니다.

한가위마당

일반학우들이 우리교의 명절을 축하하고 즐기며 어우러지는 마당입니다. 2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진행되며 동국발전을 기원하는 고사, 단위별소원지 태우기, 떡만지 등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집니다.

아! 동국

각 단위와 동악의 발전상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집회입니다. 3시30분부터 만해광장에서 이어지며 집체극 '아! 동국' 공연을 시작으로 각단위 총화 형상화, 5·18관련 정치연설, 진군선언문 낭독등으로 진행됩니다.

실천마당

1부와 2부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내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안기 위한 실천의 장이 될것입니다. 2부 행사가 모두 끝난후부터 동악교정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시대개척 민족지성 통일로 가는 애국공동체

제27대 총학생회

해방·전쟁·분단에 이르는 한국연극 족적 조명 인간과 무생물간의 관습적 관계 파기 이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제시하기도

연극평

‘역사의 가슴을 여는 이야기들’



한국현대연극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세번째를 맞고 있는 연우무대의 ‘역사의 가슴을 여는 이야기들’은 2개의 ‘짧막극’과 1개의 ‘슬라이드극’이 그 앞에 섰는 3개의 각각 다른 단막극으로 짜여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60년대까지 한국현대연극의 족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출된 3가지 이야기 즉, 해방된 조국의 현실, 전쟁이 물고 온 인간성 합물을 이겨내는 따스한 인간애, 그리고 마지막막으로 분단의 부조리함과 슬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번째 ‘의자전석회’에서는 말 그대로 의자가 연극의 주인공화되면서 기존 인간과의 관습적 관계를 파기하고 있다. 인간의 연극에 가끔씩 초라한 소품으로나 등장하던 무생물의 의지는 이제 주인공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간은 고작해야 조그만 인형으로서 전도된다. 의자보다도 못한 일군의 인간군상이 제시되면서도 여기서 그려지는 해방 공간의 정치적 문제들은 상투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당대의 ‘완전하지 못했던’ 역사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미력을 발휘한다. 연극의 우

화적 양식성이 연극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충분히 이용된 점 역시 연극을 빛나게 하는 요소이다.

두번째 ‘명추같은 영감’은 결코 명추가 아닌 우리네 소박하고 따스한 이웃의 이야기다. 과연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막극은 너무나 소탈하게, 그러나 연극이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 나를 훈훈하게 감싸는 강력함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등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나만 살고 보자는 세기말적 일류주의가 판을 치는 이 황폐한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명추 영감이 필요한지를, 또한 ‘명추같은 영감’은 우리에게 당신은 명추같이 않은지를, 당신은 영악함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소리내지 않으며 묻고 있다.

세번째 ‘죽이긴 두 사람의 대화’는 좀 더 진지한 독해법을 요구한다. 작가는 이 작품이 표현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통일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열조망이 가로지른 황량한 공간에 오지 않을 ‘장군’을 기다리는 두 ‘부하’의 일견 불협화음, 화보는 대화들은 다

양하게 읽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가장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요소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결국 두 부하의 지극이 1970년대인지 혹은 1990년대인지도 알지 못할 채 피곤에 지쳐 잠속으로 빠져들면서 연극은 끝나지만 그들은 내일 다시 그 무의미(?)한 일과를 반복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부하의 경계선을 넘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방 50년을 맞고 있는 95년 지금의 우리 마음은 그리 흉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아마도 지금의 세상이 ‘의자전석회’에서 등장했던 그런 인간군상의 세상은 아닌지 하는 기막힐때문일 수도, 작가는 한국연극계의 수준을 도매값으로 매도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금주부터 시작될 소위 ‘서울 연극제’ 팝플렛 표지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사진때문일 수도 있다.

박준
(대학원 연영과 석사과정)

영화의 페러독스

‘네프르와’ ‘나인먼스’를 통해 본 프랑스기질과 할리우드기질

‘네프르와’...인간 이기적 속성 추궁하는 삶의 모방 ‘나인먼스’...스타이미지에 의존한 모방의 모방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예는 과정, 여자가 예를 배안에 담고 지내는 기간 아슬아슬을 그린 영화가 두편이 있다. 그리고 그 쌍둥이는 동시에 극장에 내걸렸다. 순서로 보면 프랑스 영화 ‘네프르와’가 형이고, 미국영화 ‘나인먼스’가 동생이다. ‘네프르와’가 재미 있느냐 미국에선 관객을 사들여 재빨리 제작에 들어갔고, 프랑스에서 끝날 무렵 우리에게 우연히 동시 개봉이 되었다.

두 영화를 비교하면 물론 즐거리는 똑같다. 그러나 다른 점이 느껴진다. ‘네프르와’는 코미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반면에 ‘나인먼스’는 코믹 멜로 드라마로 변형되었다. 이 두 작품의 여러 차이점은 프랑스 기질과 할리우드의 기질을 단적으로 비교하게 한다. 이런 사례는 흔하게 있어왔다. ‘머프링 게르의 귀한이’ ‘서머비로’ ‘니키타’가 ‘나인먼스’를 제적되었다. 할리우드는 굳이 원작이 어느 나라냐를 따지지 않는다. 구조자와 아가라 감독의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는 조 스티지



스 감독에 의해 서부극 ‘황야의 절인’으로 개작되었다. 할리우드는 돈이 된다 싶으면 항상 자기 것으로 끌어온다. 그러한 방식은 어쩌면 영화의 본질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모른다. 영화 그 자체가 ‘모방’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술더 떠 그 모방에 대한 모방을 거듭한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다. 보들리아르에 의하면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답다는데?

미국은 확실히 스타에 의존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도 후 그랜드와 로빈 윌리엄스를 기용할 걸 보면 알

수 있다. 또, 프랑스 영화가 일상의 에피소드를 그저 나열한 듯한 구성을 취하는 대신 미국은 드라마적 구성으로 바꿔 놓았다. 그 느낌은 아주 다르다. 느슨한 프랑스식 구조는 산만하기는 해도 우리의 현실을 더욱 가깝게 실감하는데 비해, 미국식은 허구로 포장되어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 마련이다.

주제와식에 있어서도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식은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추궁한다. 감독 파트릭 브라우데가 직접 연기한 주인공 사무엘의 속성은 프랑스 신세대를 대표하여 자기 일에 열성적이고 나름

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책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여자와의 심각한 갈등에 휩싸이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방향을 거듭하게 된다. 예를 낳기 직전 그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예는 같이 낳는 것이더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는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의 의미를 추궁하는 주제로 영화를 변형시킨다. 프랑스의 끝자른 신세대 사교를 미국식으로 옮기다보니 여기저기 이가 빠진 듯이 느껴진다. 시끄럽고 코믹한 배경음악 대신 감미롭고 부드러운 멜로 드라마 음악부터 그 분위기를 다르게 끌어간다. 스타에만 의존하여 휴그랜트를 기용한 것은 이 영화의 큰 실책이다. 이 영화는 결국 그의 영화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감독은 그를 단지 스타 이미지로서만 이용했을 뿐 영화의 방향은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우는 예를 잠재우기 위해 밤에 일어나 예를 달래는 그의 모습에서 관객은 그가 아내보다도 예를 더 소중히 하며 가족을 이룬 그 기쁨에서 한없이 도취되어 있음을 실감케 해준다.

◇모란미술상 대상 받은 김광록교수를 만나

“작업은 끝이 없는 것”

한 제 1회 모란미술상은 김광록 교수의 작품의 신선도를 통찰하여 전체대상을 이 젊은 작가에게 넘겨주었다.

“상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밝힌 그는 “작업은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것”이라며 조각이라는 것이 체력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힘이 닿는 한 해 보겠다”는 포부가 얼굴표정에 역력했다.

“작업과 가르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그에게서 좋은 교수의 면모를 보게됐다. ‘속 빈 강정’ 직접 경험 하지 않고 남한테 표현하는 것

을 그는 이렇게 비유했다. 작품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이 훌륭한 조각가가 되도록 하는 것. “감각을 살려서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그의 꿈이다.

작가에게는 작품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추진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이덴티티와 추진력을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면, 따뜻한 마음은 작업실 열방에서 음악연습을 하는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작품구상은 누구나 조용한데서 하는데 말이다.



그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자연은 푸른 색을 띤 자연재질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레스 옷을 입고 있다. 계절에 따라 푸른 색에서 붉은 색으로 때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별거벗음으로 다가오는 자연과 더불어 금속재질의 자연이 있음을 보았다. 그것의 생명력까지도. (김은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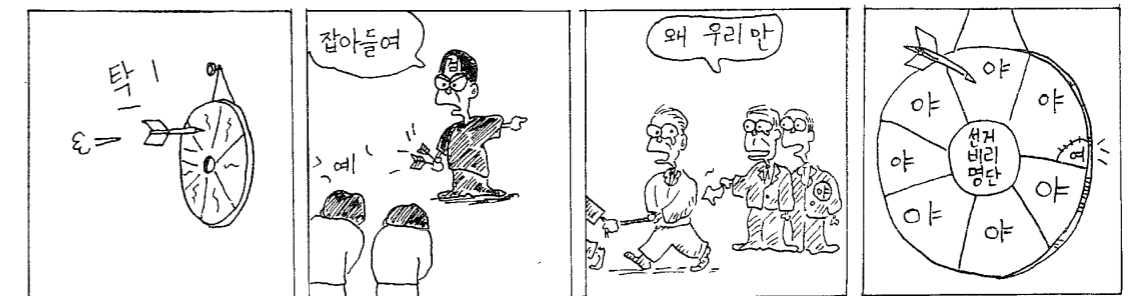


역사만들기

▲서점에 가면 많은 출판사에서 여러가지 제목들이 붙은 현대사 책들이 즐비하다. 그 만큼 한국사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를 통한 미래에 대한 삶의 지표와 희망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경험들이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 그리고 지금의 현실들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인 것이다. ▲최근 검찰은 12.12와 5.18내란 주동자들을 불기소하고 그 뒤를 이어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가·차명 예금설이 ‘한반도의 주권’이라며 끝내버렸다. 그리고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선거자금 비리로 구속된 정주영 명예회장을, 뇌물수수로 인한 전 현직 사장,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박기성 삼성건

설회장 등 경제인들의 특별사면과 노동위 동봉투 사건, 울곡사업비리, 슬롯머신 비리, 수서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으로 구속되어온 정치권 인사들을 사면시켰다. 정권출발초 사정 수사로 사법처리된 과거 정권 인사들이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최근 최락도 의원의 뇌물수수혐의를 계기로 제2의 사정국면이 올것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계는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국민회에서는 아당탄압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세간의 관심사는 지금 사정국면으로 갈것이나 여기에서 멈출것이나 끝나고 만다. 언론역시 상업성을 따진 관심사만을 이야기할 뿐 더 나아가지 않는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영삼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이사장이 복귀를 꿈꾸는 현상을 보면서 제2사정이 와도 단사자들은 다시금 사면복권과 정계복귀가 될 것이라는 불안의 지울 수 없다. 이제껏 흘러온 역사의속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역사만들기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과 무조건적인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는 경제인들에게는 정당화의 수단일수 밖에 없다. (민)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원 모집

- 모집부서 인문사회계, 화공 전기 기계 토목 건축
- 지원서교부 및 접수 1995.9.4~9.16
- 지원서 배부처 단과대 사무실, 각대학 취업포도실
- *기타사항은 지원서내의 안내서 참조바람.

금강·고려